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한독상공회의소



140 JAHRE  
DEUTSCH-KOREANISCHE  
BEZIEHUNGEN  
당 · 목 수교 140주년  
1881-2021

**2023**

**CSR REPORT**

OF GERMAN COMPANIES IN KOREA

## **2023 CSR REPORT OF GERMAN COMPANIES IN KOREA**

**KGCCI CSR Report**  
Ninth Edition, November 2023

©KGCCI DEinternational Ltd. 2023

8th Fl., Shinwon Plaza, 85, Dokseodang-ro,  
Yongsan-gu, Seoul 04419  
T +82 2 3780 4600 E info@kgcci.com  
www.kgcci.com

A portion of the proceeds from this brochure will be  
donated to a charity project in Korea.

# CONT

BASF

Boehringer Ingelheim Korea

Continental Korea

Henkel

Merck Korea

Siemens

TÜV SÜD Korea

Volkswagen Group Korea

Armacell Korea

Porsche Korea

KGCCI

# ENTS



## Dear Reader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GCCI) for once again compiling an annual report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of its membership in Korea.

CSR is a key value which is shared by the German business community in Korea. German companies want to contribute to the societies in which they live and work. They want to be an active part of this community.

The German Government is an active proponent of CSR. It encourages the whole business community, includ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to live up to its social responsibilities. In Germany, CSR goes beyond social issues. Our concept is wider and directed towards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As these are major challenges for both Germany and Korea, I welcome very much that some of the CSR activities of German companies in Korea also focus on these important issues.

CSR is also a wonderful way to foster people-to-people contacts and increase mutual understanding. I was especially impressed by the large number of KGCCI member companies participating in one recent initiative, the “140 Guide Walkers”. In the 140th year of relations between Germany and Korea, more than 140 German expats walking 5 kilometers together. Embassy staff also participated, enjoyed a good time together and learned a lot about each other.

Initiatives like this bring people from Germany and Korea together, increase mutual understanding and are the foundation of our bilateral relationship. By engaging in CSR, German companies are making an active contribution to strengthening the excellent ties between Germany and Korea. I am very grateful for that.

**Georg Schmidt**  
German Ambassador to Korea

##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독일 회원사의 사회적 책임 (CSR)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발간해 주신 한독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SR는 한국에서 독일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공유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독일 기업은 자신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사회에 기여하고, 이 커뮤니티의 활성적인 일원이 되려고 합니다.

독일 정부는 CSR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모든 비즈니스 커뮤니티, 특히 중소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권장합니다.

독일에서 CSR은 사회 문제를 넘어 환경 및 기후 변화에 집중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독일과 한국 양국에게 중요한 과제이므로, 한국 내 독일 기업의 일부 CSR 활동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CSR은 또한 사람 간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멋진 방법입니다. 특히 "140 가이드 워커"라는 최근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KGCCI 회원사가 많은 것에 감명받았습니다. 독일과 한국 간 관계 140주년을 맞아 140명 이상의 독일인이 시각 장애가 있는 한국 시민들과 함께 5 킬로미터를 함께 걷는 아침을 보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도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독일과 한국 사람들을 모이게 하며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양국 간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독일 기업은 CSR에 참여함으로써 독일과 한국 간 훌륭한 관계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 Dear Readers,

The year 2023 marks a significant milestone as we celebrate the 140th anniversary of Korea-Germany relations. This jubilee not just a historical mark but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our shared values and the positive impact that German companies collectively create in Korea.

I am honored to present this compilation of our collective efforts and achievements in the realm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This year, our CSR initiatives have taken a remarkable stride. In celebration of the 140th anniversary of bilateral relations, the “140 Guide Walkers” joint CSR initiative, in collaboration with our member companies and partners, exemplified our dedication to making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lives of others. Together, we walked alongside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during the 9th Harmony Marathon, promoting inclusivity, health, and awareness. Additionally, this initiative allowed us to raise a substantial amount of donations to improve transportation services and daily routines for the visually impaired.

As we navigate the ever-changing landscape of business and society, the importance of CSR becomes increasingly evident. It is not just a set of initiatives; it is a mindset that guides our actions and decisions. It is about creating shared value, fostering collaboration, and leaving a legacy that extends beyond businesses.

KGCCI believes that businesses play a pivotal role in shaping the world around us beyond economic contributions. The conviction that companies have a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positively to society and the environment is deeply ingrained in German companies, and it is a principle that we uphold with unwavering commitment.

In this ninth “KGCCI CSR Report of German Companies in Korea”, you will find a comprehensive overview of CSR activities, initiatives, and their impact on society and life in Korea. I encourage you to explore these stories, reflect on our shared journey, and join us in our ongoing commitment to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Together, we can continue to be a force for positive change.

**Dr. Martin Henkelmann**  
President & CEO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은 한독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의미로서 기념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독일기업들이 함께 하는 가치와 영향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리포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분야에서 주한독일기업들의 노력과 성취를 소개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독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회원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진행한 공동 사회공헌 프로젝트 “140 가이드 워커”를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제9회 어울림 마라톤에서 시각 장애인과 함께 걸으며 사회적 약자 포용성, 건강 및 인식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더불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각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개선에 위한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지속되는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책임은 단지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이윤을 넘어 미래에 전달하는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경제적인 기여 이상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사회와 환경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기업에 부여 되어있다는 믿음은 독일 기업들에 깊게 뿌리내린 점이며, 우리는 이 신념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9번째 “KGCCI 독일 기업들의 CSR 리포트”는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한독일기업들의 여러 사회공헌 활동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는 이러한 활동들과 헌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마틴 헹켈만**  
한독상공회의소 대표



## BASF

At BASF, we create chemistry for a sustainable future. The approximately 111,000 employees in the BASF Group work on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our customers in nearly all sectors and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BASF has been a committed partner to Korea since 1954. As a leading foreign investor in the chemical industry in Korea, BASF operates eight world-scale production sites in the country. The company also maintains the regional headquarters of its Electronic Materials business and the Electronic Materials R&D Center Asia Pacific in Suwon. In addition, one R&D center for advanced material solutions and two technical development centers are located across Korea. The sales and administration offices are located in Seoul.

바스프는 화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전세계 약 11만 1천명의 임직원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스프는 1954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선도적 외국 기업으로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한국 내 바스프는 국내 8개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원에는 바스프 아태지역 전자소재 사업본부와 아태지역 전자소재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개의 첨단 소재 솔루션 R&D 센터와 2개의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영업 및 관리 총괄 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865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54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1,221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Chemicals

Website  
홈페이지  
www.basf.com

# BASF – WE CREATE CHEMISTRY

BASF's social engagement contributes to solving current and future social challenges. In doing so, we combine impact-oriented social activities with long-term corporate success. With our social engagement strategy, we want to open up learning opportunities. Together with our partners, we align our social engagement in an impact-oriented way. We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ese goals with donations and our own not-for-profit activities (Corporate Citizenship) as well as with business-oriented projects (Starting Ventures).

바스프는 사회 참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인 기업의 성공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사회에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기부 및 비영리 활동과 비즈니스 관련 프로젝트 등을 실천합니다. '기업 시민의식'과 '벤처사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영리 프로젝트를 통해, 바스프의 사업장이 위치한 전세계의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바스프는 개발도상국과 신흥 국가의 저소득층 소비자 및 벨류체인 파트너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 • Connected to Society

BASF Korea recognizes its responsibility and role in the local community and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CSR activities to contribute to the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of the cities where its business sites are loca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business, BASF Korea at each site has been provided long-term support and contributed to the local community through various programs such as Kids Lab, a children's science education program, Kimchi-making for underprivileged families, volunteer work for disabled and underprivileged facilities and schools, and donation of scholarships to local universities. BASF will continue to striv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local communities by sharing its development and social responsibilities and providing the help local communities need.

한국바스프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장이 위치한 도시의 경제, 사회, 환경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CSR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진출 초기부터 어린이 과학교육 프로그램인 키즈랩, 소외 가정을 위한 김장 담그기, 다양한 장애인 및 소외 계층 시설 및 학교 대상 봉사활동, 지역 내 대학교 장학금 기부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스프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고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In Seoul

BASF Korea participated in the "Together Garden" volunteer activity held at Seobu Disability Welfare Center located in Seoul, where BASF Korea has a long-standing relationship for six years. BASF Korea employees took part in an eco-friendly garden run by the disabled at the West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cooked Korea traditional festival foods with the disabled to celebrate Chuseok. Additionally, BASF Korea donated an electronic piano that was needed at the welfare center, thereby supporting a happier life for the disabled at the welfare center.

한국바스프는 6년간 인연을 맺어온 서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함께하는 텃밭"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한국바스프 임직원들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친환경 텃밭 활동에 참여하고, 추석을 맞아 장애인들과 함께 명절 음식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빌려 복지관에서 필요로 했던 전자피아노를 기증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보다 행복한 복지관 생활을 응원했습니다.



BASF Korea participated in volunteer activities at Seobu Disability Welfare Center / 한국바스프 임직원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함께하는 텃밭" 후원품 전달 및 자원봉사 활동

### • In Yeosu

BASF Korea Yeosu site has been carrying out continuou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t White Lotus, a nursing home located in Yeosu, every year such as supporting spring and winter Kimchi-making events, garden work, and weed removal. In the summer of 2023, heavy rain caused a landslide behind the White Lotus, causing damage to the facility, including the evacuation of 60 seniors and workers at the nursing home. Therefore, BASF Yeosu site donated 3 million won to the White Lotus for restoration work and facility improvement in landslide-affected areas, helping seniors quickly recover from their daily lives.

하안연꽃은 여수에 위치한 요양원으로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매년 하안연꽃에 봄, 겨울 김장행사 지원 및 텃밭 작업, 잡초제거 등 꾸준한 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2023년 여름 폭우로 인해 하안연꽃 시설 뒤편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요양 시설 어르신들과 종사자 60명이 대피하는 등 시설 피해가 발생하여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폭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하안연꽃 요양원에 300만원의 성금의 도움을 손길을 건넸습니다. 전달금은 산사태 발생지역 복구공사 및 시설 개선에 사용되어 어르신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왔습니다.



BASF Yeosu site donated 3 million won to the White Lotus Nursing Home, which was damaged by a landslide due to heavy rain /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산사태 피해를 입은 하안연꽃 요양원에 성금 전달



BASF Yeosu site donated 2 million won to Ssangbong Social Welfare Center to support low-income families and families in crisis. /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여수 지역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위해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

BASF Korea Yeosu site donated 2 million won to Ssangbong Social Welfare Center to support low-income families and families in crisis. BASF Korea Yeosu site donated a total of KRW 15.19 million raised by employees voluntarily and labor unions to variou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located in Yeosu including Ssangbong Social Welfare Center. Yeosu site plans to continue to support vulnerable residents who are in the blind spot of welfare through sponsorship and volunteer activities.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여수 지역사회의 저소득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과 노동조합 기부금, 총 1,519만원을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외에도 여수에 위치한 다양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여수공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여수 지역주민들이 더 좋은 내일을 꿈꾸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길 바라며 여수공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후원활동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 Boehringer Ingelheim

Founded in 1976 as a Korean subsidiary of Boehringer Ingelheim, one of the world's 20 leading pharmaceutical companies, Boehringer Ingelheim Korea develops and delivers breakthrough therapies in sectors of Human Pharma and Animal Health. Under its global corporate vision of 'Value through Innovation,' Boehringer Ingelheim Korea prioritizes supplying new medicines to the patients of Korea and improving lives of humans and animals by promoting their health.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세계 20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베링거인겔하임의 한국 법인으로, 국내 1976년 설립되어 인체의약품과 동물의약품 분야에서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조'라는 글로벌 기업 비전 아래, 한국 환자들에게 우수한 신약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인류와 동물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885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76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242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Pharmaceutical

**Website**  
홈페이지  
www.bikr.co.kr

# BOEHRINGER INGELHEIM CSR ACTIVITIES IN KOREA

In 2021, Boehringer Ingelheim established the global initia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 For Generations (SD4G),' to contribute to creating solutions to global challenges, and to help enable sustainable change. SD4G initiative is defined into three pillars of 'More Health (Good Health for People & Animals),' 'More Potential (Good Health for Communities & Our People),' and 'More Green (Good Health for the Planet).'

In line with the global initiative, Boehringer Ingelheim Korea conducts activities to improve the world by better treatment options and healthcare solutions.

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 2021년 전세계 임직원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모든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SD4G, Sustainable Development - For Generations)'이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제정했습니다. SD4G는 More Health(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위해), More Potential(지역 사회와 임직원의 성장을 돕는 발전을 위해), More Green(건강한 지구를 위해) 라는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또한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고, 더 나은 헬스케어 솔루션을 가능하게 하며,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More Potential - Wunsch Medical Awards (Since 1990) 분취의학상

Wunsch Medical Award, administered jointly by Boehringer Ingelheim Korea and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AMS), marks its 33rd year in 2023. Boehringer Ingelheim Korea, as a sponsor of the Wunsch Medical Award, supports advancement of medical research in Korea by discovering and recognizing Korean medical scientists' contribution and achievements. Wunsch Medical Award was established to honor Dr. Richard Wunsch, the first German doctor in Korea. It annually awards medical scientists that made outstanding research contributions to advancement of medical research in Korea, through rigorous and unbiased review. Wunsch Medical Award is recognized as the most prestigious medical award in Korea, based on its history, and is considered the "Korean equivalent of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분취의학상은 1990년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공동으로 제정해 올해로 33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본 시상상을 통해 국내 의학자들의 업적을 발굴하여, 이들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고 의학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독일인 의사인 리하르트 분취 박사의 정신을 기리는 분취의학상은 연구 논문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국내 의학 발전에 주목할 만한 연구 업적을 남긴 의학자들을 매년 선정 및 시상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토대로 국내 최고 권위의 의학상으로 인정받아 '한국의 노벨 생리의학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 More Potential - B-effect (Butterfly effect) (Since 2021)



B-effect is a social contribution project launched jointly with Ashoka, a global non-profit organization, which conducts global CSR activities relevant to social agenda needed in local communities each year. This year, under the topic of 'Healthy Senior Living (Longevity),' B-effect hosted internal campaign where colleagues were encouraged to spend time and take photos with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Boehringer Ingelheim Korea's colleagues then voluntarily visited local nursing home named Shindang Social Welfare Center to communicate with local senior communities and provide learning opportunities on digital skills.

B-effect, as a social contribution project conduct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Southeast Asia, Australia, and New Zealand, plans to continue to conduct CSR activities that reflect each country's situation, for the healthy life and longevity of the elderly.

B-effect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아쇼카(Ashoka)와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매년 지역사회에 요구되는 다양한 사회적 아젠다 관련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노년층에서의 건강한 삶(장수)'를 주제로 임직원들이 자신의 부모님/조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이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내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effect는 한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진행되는 BI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으로 앞으로도 노년층의 건강한 삶과 장수를 위해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 More Health - Improve Stroke Care (Since 2017)



Boehringer Ingelheim has globally launched 'Angels Initiative,' in partnership with the European Stroke Organization (ESO), the World Stroke Organization (WSO), the Stroke Alliance for Europe (SAFE), and many other national stroke societies, companies and health institutions.

In 2023, the Angels Team at Boehringer Ingelheim Korea's Medical Affairs provided educational session and simulation workshop at 10 hospitals nation-wide, to enable timely treatment for stroke patients and improve the treatment environment as well as awareness on stroke. The team hosts quarterly WSO Angels Award ceremony to recognize hospitals working to improve stroke care and honor their efforts.

베링거인겔하임은 유럽뇌졸중학회, 세계뇌졸중학회, 유럽뇌졸중연맹 및 여러 국가의 학회, 기업, 의료기관들과 함께 '엔젤스 이니셔티브 (Angels Initiative)' 글로벌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의학부의 엔젤스(Angels) 팀은 뇌졸중 질환에 대한 인식 증진과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올해, 전국 10개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교육과 시뮬레이션 워크숍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국내 뇌졸중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병원들을 알리고, 그들의 노력을 기리기 위해 매년 WSO Angels Award 시상식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 More Green - Be Green & Green IT Campaign (Since 2022)

Boehringer Ingelheim Korea conducts 'Be Green' program, encouraging lifestyle changes of colleagues to contribute to reducing CO2 emission, and 'Green IT' program, donating IT devices for those in need, to reduce

operational waste and support sustainable environment. In this year's Green IT program, Boehringer Ingelheim Korea donated about 44 laptops and iPads that are no longer used in the office,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e annual program is also held in other regions including Southeast Asia, Australia, and New Zealand.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친환경적인 행동을 장려하는 'Be Green'과 IT 기기를 기부해 운영 폐기물을 줄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Green IT'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reen IT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사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약 40여대의 노트북과 아이패드들을 소외계층에 기부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전개되고 있으며, 매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 • More Health - Animal Health CSR (Since 2021)

Boehringer Ingelheim Korea collaborates with veterinary associations and relevant groups of stakeholders to protect shelter animals' health and prevent diseases.

This year, in partnership with Gyeonggi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Boehringer Ingelheim Korea provided shelter animals with heartworm preventatives. Boehringer Ingelheim Korea also continues efforts for safe treatment environment for companion animals, in collaboration with Veterinarians without Borders and other organizations.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동물약품에서는 다양한 단체, 학회 등과 협업하여 유기된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질병 예방 및 보호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경기도수의사회와 함께 유기 보호소의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전달하였으며, 국경 없는 수의사회 등을 통해 반려동물의 안전한 치료환경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More Potential - A Day of Service (Since 2022)

Boehringer Ingelheim Korea regularly collaborates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to host employee volunteering programs, contributing to the local communities and sustainable society. Last year, Boehringer Ingelheim Korea hosted 'Kimchi-Sharing' community service event, in partnership with Shindang Social Welfare Center.



Over 30 colleagues participated in the event, making 2,200kg of kimchi, which then were delivered to 220 socially underprivileged elderly people.

This year, all colleagues of Boehringer Ingelheim Korea participated in a 'plogging' event at Yeouido Hangang Park, in partnership with Seoul Volunteer Center and Seoul Hangang Park Headquarters. Through the 'green' program that promotes both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layed a part in building healthier communities.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직원 중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지역 내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함께하는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0여 명의 임직원들이 직접 김장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 어르신 220분에게 총 2,200kg의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올해에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한강사업본부와 함께 협력하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전직원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플로깅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친환경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 Continental Korea

Founded in 1871, Continental as the technology company offers safe, efficient, intelligent and affordable solutions for vehicles, machines, traffic and transportation. Continental Korea has been established in 1986 (Rubber Group) & 1987 (Automotive Group) and employs around 1,300 skilled employees in 8 locations. Continental Korea striv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utomotive industry by creating jobs and localizing products and technology through continuous growth. Furthermore, the company is committed to fulfilling i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 build trust and support from diverse stakeholders in local communities.

1871년 설립된 세계적인 기술기업 콘티넨탈은 자동차, 기계, 교통 및 수송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능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986년 러버 그룹 부문과 1987년 오토모티브 그룹 부문으로 설립된 콘티넨탈 코리아는 현재 국내 8개 사업장에서 총 1,3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콘티넨탈 코리아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품 및 기술을 현지화시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사회 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871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86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1,300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Automotive

**Website**  
홈페이지  
www.continental.com/ko-kr/

# CORPORATE CITIZENSHIP AT CONTINENTAL KOREA



Corporate Citizenship is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business management. Continental Korea performs variou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o let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be broadly known and fulfill ou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a responsible corporate citizen beyond our business activities.

기업 시민 정신은 지속 가능한 경영의 기반입니다. 콘티넨탈 코리아는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써, 기업 활동을 넘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Green Boosters’ – Corporate Citizenship Ambassadors

Continental Korea has launched Green Boosters on June 1, 2023, the Corporate Citizenship Ambassadors along with employees for promoting various eco-friendly activities within local communities. Green Boosters is organized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futur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in the company and perform ou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a reliable Corporate Citizen. About 20 Green Boosters, Corporate Citizenship Ambassadors of employees from voluntary basis at Continental Korea, are acting as supporters for various eco-friendly activities developed by Continental Korea.

콘티넨탈 코리아는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환경 관련 사회공헌활동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 서포터즈인 그린부스터(Green Booster)를 2023년 6월 1일에 출범하였습니다. 그린부스터는 사내 외 지속 가능한 미래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콘티넨탈 코리아 임직원 중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선발된 약 20명의 그린부스터는 콘티넨탈 코리아가 전개하는 다양한 환경 보호 관련 프로그램의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5 Sustainability Manifestos’ for sustainable environment

Continental Korea is operating eco-friendly campaigns through ‘5 Sustainability Manifestos’ in which all employees can easily participate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long with Green Boosters. ‘5 Sustainability Manifestos’ include Reduce Electricity Consumption, Digital Minimalism, Avoid Disposable Products, Green Commute and Recycle & Reuse, which allow employees to take part in activities for eco-friendly goals in daily lives.

콘티넨탈 코리아는 임직원 사회공헌 서포터즈인 ‘그린부스터’와 함께 임직원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5가지 지속가능성 행동 선언’을 통해 다양한 친환경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가지 지속가능성 행동 선언’은 일상에서 환경 친화적인 목표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및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도보나 자전거 출퇴근, 재사용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REEN BOOSTER** 와 함께 실천하는  
**5가지 지속가능성 행동 선언**



The first manifesto, focusing on reducing electricity consumption, encourages daily actions such as powering down monitors during lunch breaks and switching off lights and air conditioners after meetings, empowering employees to contribute to energy conservation in their everyday lives. The second manifesto, Embracing Digital Minimalism, calls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in daily work routines by decluttering email inboxes, minimizing shared files and file storage, and optimizing computer usage time.

The third manifesto, Avoiding Disposable Products, advocates the use of personal cups and tumblers to decrease reliance on paper cups. The volume of paper cup usage by employees is monitored over two weeks, and results are shared to motivate further reduction. The fourth manifesto encourages employees to commute to the office on foot or by bicycle through engaging challenges. Throughout this initiative, we will motivate our employees to opt for riding or walking over private vehicles when covering short distances. We anticipate that this effort will contribute to environmental preservation by lowering carbon emissions.

The fifth manifesto encourages employe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recycling and reusing. We will establish a partnership with a local NGO dedicated to creating fulfill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collection of goods from individuals,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To facilitate this effort, we will set up an in-company donation drive for two weeks, allowing employees to contribute their unused items, including clothing and more. By promoting tax benefits and waste reduction through the NGO, we aim to support the local community and reduce unnecessary waste.

On top of that, on the World Environment Day, Continental Korea performs logging that practices exercis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t the same time with employee volunteers. Through the plogging activities which can be easily practiced in daily life, Employees at Continental Korea participate in efforts to make the clean environment of local communities and share experiences, also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futur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먼저, 에너지 절약의 경우 점심시간 모니터 전원을 끄거나, 회의실 사용 후 조명 혹은 에어컨을 끄는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행동 미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둘째,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 캠페인은 불필요한 이메일 정리, 공유 파일 및 폴더 용량 줄이기, 컴퓨터 사용 시간 절약 등을 통해 일상 업무 중 탄소 배출 줄이기에 동참합니다. 셋째, 일회용품 줄이기는 임직원들의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컵 및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2주 동안 실제 직원들의 종이컵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수치를 공개해 독려합니다. 넷째, 사내 헬리지를 통해 직원들의 도보나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하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의류나 물품 등의 NGO 기부를 통해 재활용 및 재사용을 권장합니다.

이 외에도 매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동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티넨탈 코리아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플로깅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는 노력에 참여하고 경험을 나누며, 지속 가능한 미래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Henkel

With its brands, innovations and technologies, Henkel holds leading market positions worldwide in the industrial and consumer businesses. The business unit Adhesive Technologies is global leader in the market of adhesives, sealants and functional coatings. With Consumer Brands, the company holds leading positions especially in hair care and laundry & home care in many markets and categories around the world. The company's three strongest brands are Loctite, Persil and Schwarzkopf. In fiscal 2022, Henkel reported sales of more than 22 billion euros and adjusted operating profit of around 2.3 billion euros. Sustainability has a long tradition at Henkel, and the company has a clear sustainability strategy with concrete targets. Henkel was founded in 1876 and today employs a diverse team of more than 50,000 people worldwide.

헨켈은 브랜드와 혁신, 테크놀러지를 통해 소비재와 산업용 비즈니스에서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접착 테크놀러지 사업부문은 접착제, 실런트, 기능성 코팅 시장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컨슈머 브랜드를 통해서 전 세계 헤어 케어와 세제 & 홈케어 분야의 여러 시장과 카테고리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헨켈의 세 가지 강력한 브랜드는 룩타이트, 퍼실, 그리고 슈와츠코프입니다. 헨켈은 2022년 회계연도에 220억 유로 이상의 매출과 약 23억 유로의 조정영업이익을 보고했습니다. 헨켈은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와 명확한 지속 가능성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헨켈은 1876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50,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Company Profile

-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876
-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89
-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700
-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Adhesive Technologies, Consumer Brands
-  Website  
홈페이지  
www.henkel.com ; www.henkel.co.kr

# ANCHORING SUSTAINABILITY IN EVERYTHING WE DO



For Henkel, sustainable growth is not only a core value of the company but also an indispensable element for running a successful long-term business and fulfill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nkel strives towards innovative sustainability growth solutions under the goal of 'Achieve More with Less,' aiming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limited resources. We are committed to creating more value with fewer resources, contributing to customers, consumers, partners, and the local community.

헨켈에게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은 기업의 주요 가치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헨켈은 'Achieve More with Less'라는 목표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속가능성장 솔루션을 추구합니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 소비자, 파트너,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Guide Walker Volunteer Activity 시각장애인 가이드워커 자원봉사

Henkel Korea participated as guide walkers in a walking event celebrating the 1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Germany, alongside member companies of KGCCI. The 'guide walker' volunteer activity involves assisting visually impaired participants by serving as their eyes, guiding them along the route. Henkel employees walked alongside visually impaired participants, fostering meaningful moments through valuable conversations. Through such volunteer activities, Henkel Korea demonstrates its commitment to social responsibility by promoting disability awareness and societal engagement. Furthermore, as part of our contribution to the event, Henkel provided our own product, the mosquito repellent 'MyKeeper,' as commemorative gifts to all participants.

헨켈 코리아는 KGCCI 회원사들과 함께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걷기대회에 가이드워커로 참여했습니다. '가이드 워커' 봉사활동은 시각 장애인 참가자들이 걸을 때 그들의 눈이 되어 길을 안내해주는 활동으로, 헨켈 직원들은 시각장애인 참가자들과 나란히 걸으며 소중한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헨켈 코리아는 이러한 봉사 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등 사회 공헌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헨켈 자사 제품인 모기퇴치제 마이키퍼를 참가자 전원 기념품으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 • 'Save the Planet' Pop-Up Book 헨켈 '지구를 지켜라' 환경 보호 팝업북 제작 및 기부

In celebration of Earth Day, Henkel organized an environmental awareness campaign called the "Protect Our Environment - Family Drawing Contest" to raise awareness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winning entries from this contest were transformed into an educational pop-up picture book titled "Save the Planet" designed to enhance children's environmental awareness. When opened, the pages of this pop-up book feature three-dimensional illustrations that effectively and comprehensively convey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to children. Henkel employees contributed their time and talents to personally create and donate the "Save the Planet" pop-up books to children's libraries and local childcare facilities.

헨켈은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을 지키는 우리 가족 그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상작들은 어린이 환경 감수성 증진을 돕기 위한 환경 교육 팝업 그림 동화책 '지구를 지켜라'로 제작되었습니다. 책장을 펼치면 그림이 입체적으로 표현된 팝업북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알기 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헨켈 직원들이 시간과 재능 기부를 통해 직접 제작한 '지구를 지켜라' 팝업북은 어린이 도서관 및 지역 아동 시설에 기증하였습니다.



### • Henkel Forscherwelt in Korea 헨켈 어린이 과학자 세상



Henkel is currently engaged in the Henkel Child Scientist World, a science-based community outreach initiative aimed at fostering children's interest and curiosity in science. This program is designed as part of the global science education initiative "Forscherwelt" to enable children to naturally acquire scientific knowledge through STEAM-based activities. It encompasses content related to Henkel's core business areas, including adhesives, detergents, and personal care, while also addressing sustainability. Activities offered include creating gingerbread houses using adhesive made from food, experimenting with the surface tension of milk and kitchen detergents, and making soap using gelatin, providing children with hands-on learning experiences in science. Furthermore, Henkel is dedicated to expanding access to science education content for more children through online live experiments.

헨켈은 어린이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장려하고, 다양한 실험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 문화 사회공헌 활동인 헨켈 어린이 과학자 세상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과학 교육 이니셔티브 '포셔벨트'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STEAM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헨켈의 주요 사업 부문인 접착제, 세제, 퍼스널 케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며,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만든 접착제를 이용해 과자집 만들기, 우유와 주방세제의 표면 장력 실험, 젤라틴을 이용한 비누 만들기 등 어린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라이브 실험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과학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Donations to Samdong Boys Town 삼동소년촌 정기 후원

Henkel Korea extended a charitable donation to Samdong Boys Town to enhance the living conditions of its facility. Samdong Boys Town is a childcare institution that provides protection and nurturing for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Since 2015, Henkel Korea has maintained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there, starting with rice donations and subsequently contributing various items such as replacing auditorium desks and chairs and providing computers. To date, the donations have exceeded KRW 60 million. Especially during the challenging times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when volunteer resources and corporate sponsorships dwindled, Henkel's support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ensuring a more comfortable and pleasant environment for the children.

헨켈 코리아는 삼동소년촌에 시설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 나누기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삼동 소년촌은 시설 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 양육하는 아동 양육 시설입니다. 헨켈 코리아는 삼동 소년촌과 2015년 쌀 기부를 시작으로 강당 책상과 의자 교체, 컴퓨터 기부 등 다양한 물품으로 현재까지 약 6000만 원 이상의 기부를 통해 인연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자원봉사 및 기업들의 후원이 줄어 어려운 상황에서, 헨켈의 지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Merck Korea

Merck Korea was established in 1989. Electronics business offers advanced materials for the electronics industry and manufactures functional materials and effect pigments. Healthcare business provides medicines and devices on cancer, multiple sclerosis, growth disorders and infertility. Life science business has wide portfolio for research, water purification and biomonitoring and provides equipment for research and bioprocessing.

1989년 설립된 한국 머크의 일렉트로닉스 사업은 전자 산업을 위한 다양한 첨단 재료와 함께 기능성 원료 및 이펙트 안료를 제조하며, 헬스케어 사업은 암, 다발성경화증 및 난임 등의 질환을 위한 의약품 및 디바이스를 제공한다. 생명과학 사업은 연구, 정제수 및 미생물 검사를 위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 제조 공정을 위한 장비를 제공한다.

## Company Profile

-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668
-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89
-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1,725 (as of September 2023)
-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Electronics, Healthcare, Life Science
-  Website  
홈페이지  
www.merck.co.kr

# WE TAKE ON RESPONSIBILITY

This is something we've been doing for 355 years. We will be more responsible for looking, listening, and doing better. Listening is especially important to us because we want to know what matters to our employees, customers, investors, and other stakeholders. There is no better way to protect their interests, meet their needs – and secure our company's long-term success. In fact, we've made this aspiration an integral pillar of our corporate strategy. Our corporate responsibility strategy builds on this approach, leading us to practice responsible governance each and every day. In our CR efforts, we focus our resources on those areas where we can make the biggest difference, which is why we pursue three strategic spheres of activity: health, environment, and education & culture. In doing so, we constantly seek to secure the future of society while honing our competitive edge.

### 머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355년 동안 유지된 머크의 신념입니다.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에 더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특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크는 직원, 고객, 투자자,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자 노력합니다. 이해하게 하고, 요구를 충족시키며,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머크는 이러한 포부를 기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머크의 기업책임(Sustainability) 전략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실천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머크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분야인 건강, 환경, 교육 및 문화 3 가지 전략 분야에 전념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밝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 ● Corporate Leading Activities 회사 주도 활동

### 1) R&D Support 연구 지원

**Merck Award (2004~):** “Merck Award” was established for technology papers in 2004 during the IMID (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 organized by Korean Information Display Society. The year 2004 marked the 100th anniversary of Merck’s liquid crystal research and the award was designed to recognize outstanding scientific contributions to display technologies. Since 1904, Merck had started R&D of liquid crystals after the world-wide first discovery of liquid crystal phenomenon in 1888 and has celebrated and led the display industry over 100 years with continuous efforts and contributions. In 2006, the scope of Merck Award enlarged from liquid crystal display technology to all display technology along with young scientists by establishing “Merck Young Scientist Award.” In 2013, when the 125th anniversary of liquid crystal discovery was celebrated, Merck Korea and Korean Information Display Society decid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eligibility criteria from published



papers to research activities from the 10th Merck Award, another milestone in effort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Korea’s display industry.

**머크 어워드 (2004~):** 2004년에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가 주관하는 IMID에서 제정된 기술논문상으로, 머크 그룹이 1888년 세계 최초로 액정 물질을 발견한 이후, 1904년부터 액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100년이 넘도록 액정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하며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의 뛰어난 과학적 업적을 지원하기 위해 머크의 액정 연구 100주년이 되는 2004년에 제정되었다. 2006년에는 머크 젊은 과학자상으로 확대되었고 액정발견 125주년이었었던 2013년 제10회 머크 어워드부터 한국 머크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는 시상 내역 및 포상을 논문상에서 학술상으로 변경하여,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Merck 350 Future Researcher Award (2018~):** ‘Merck 350 Future Researcher Award’ was co-established by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and Merck Korea to celebrate the 350th anniversary of Merck in 2018, and the winners receive an award plaque, cash prize and a memento.

**머크 350 미래연구자상 (2018~):** ‘머크 350 미래연구자상’은 2018년 머크 창립 3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와 한국 머크가 공동으로 제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머크에서 기증한 상금 및 기념품이 전달된다.

**Korean Cancer Association-Merck Scientific Award (2011~):** The award is to encourage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in colorectal cancer and head and neck cancer and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oncology medical science in Korea under partnership with the Korean Cancer Association and established in 2011.

**대한암학회 머크 학술상 (2011~):** 대한암학회와 함께 국내 대장암 및 두경부 암 분야 연구 및 학술 지원을 위해 2011년 제정한 학술상이다.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Oncology-Merck Scientific Award (2012~):** The award is to encourage clinical research in colorectal cancer and contribute to onc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s in Korea under partnership with the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Oncology and established in 2012.

**한국임상암학회 머크 학술상 (2012~):** 한국임상암학회와 함께 국내 대장암 임상연구 분야 연구 및 학술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제정한 학술상이다.

**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Merck Scientific Award (2013~):** The award is to contribute to recognize scientific achievement and encourag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fertility research field under partnership with 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nd established in 2013.

**대한생식의학회 머크 학술상 (2013~):** 대한생식의학회와 함께 생식의학 분야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제정한 학술상이다.

## 2) Support for Young Talents 젊은 인재들을 위한 지원



**KIDS Display Camp (2021~):** Merck Korea participates in the “KIDS Display Camp”, hosted by The Korean Information Display Society (KIDS) to support young talents. The researchers from the Merck Electronics Korea Display team, gives a lecture about Displays for students from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he lecture consisted of simple and fun content to raise the students’ interest in Displays.

**KIDS 디스플레이 캠프 (2021~):** 머크는 사단법인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에서 개최하는 “KIDS 디스플레이 캠프”에 참가하여 강연을 하고 있다.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에 디스플레이 분야 머크 연구원들이 미래 인재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기술과 제품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디스플레이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 3) Support for diverse society 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Support for Children and youth:** Children and youth support via ‘Right Growth Campaign’ to increase awareness of right growth. Donated masks, books purchase expenses, and messages of encouragement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to the local charity ChildFund Korea via Nurimaru campaign.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머크는 아동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바른성장 캠페인’을 공동 후원하였다. 또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누리마루 캠페인’을 통해 마스크와 도서를 기부하였으며, 2011년부터 어린이재단 저소득 가정의 저신장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지원하였다.

**Support for Patients:** Released ‘Supporting Women with Cancer’ report, presenting findings from a global survey of 4,585 women across 23 countries, and implemented fundraising as matching grant with doctors via cancer campaign. Fully donated to Korea Blood Disease & Cancer Association for the cancer patients & family carers to support treatment cost and cancer education programs.

**환자 지원:** 세계 23개국 4,585명 여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여성 암환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대장암 전문의들이 참여한 캠페인을 통해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암환자 기금 출연하였다. 이렇게 모인 금액 전액은 암환자 치료비 지원 및 환자 가족을 위한 암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한국혈액암협회에 기부되었다.

## ● Employee Leading Volunteer Activities for Local Community 지역 사회를 위한 직원 주도 봉사 활동



**Volunteer Club ‘Onnuriae’ (2012~):** Merck employees of Anseong-shi, Gyeonggi-do, organized volunteer club ‘Onnuriae’ in January 2012 and it was registered in Anseong-shi. During 5 years before established, one employee donated briquettes, rice, clothes to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living alone with supporting from company and acquaintance. Onnuriae club was organized to expand to employee leading activity and has supported the underprivileged and the elderly living alone in Anseong-shi.

**온누리애(愛) 클럽 (2012~):** 경기도 안성의 한국 머크 직원들은 2012년 1월 자발적으로 ‘온누리애(愛)’ 클럽을 조직하여 안성시에 등록, 활동해오고 있다. 직원 개인이 회사와 지인으로부터 지원받아 연탄, 쌀, 의류 등을 장애우와 독거노인에게 약 5년간 지원해오던 활동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확대해 안성시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지원해오고 있다.



**Sharing Happiness (2020~):** Merck is doing ‘Sharing Happiness’ volunteer activities for local communities where Merck sites are located. 4 branches (Sihwa/Banwol/Pangyo, Ansan, Pyeongtaek, and Ulsan) are supporting underprivileged neighbors in a variety of ways from donating to deliver necessities and stationery to physical support such as briquette delivery, house building and facility maintenance.

**행복나눔 (2020~):** 머크는 머크 사이트가 속한 지역 사회를 위한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화/반월/판교, 안산, 평택, 울산 총 네 개의 지부로 운영 중이며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생필품 지원을 위한 기부부터 연탄 배달, 집짓기, 시설물 정비 등 물리적 지원까지 폭넓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SIEMENS

## Siemens

Siemens, headquartered in Berlin and Munich, is a technology company focused on industry,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healthcare, that has stood for engineering excellence, quality, innovation, reliability, and internationality for more than 175 years. From more resource-efficient factories, resilient supply chains, and smarter buildings and grids, to cleaner and more comfortable transportation as well as advanced healthcare, Siemens creates technology with purpose adding real value for customers. By combining the real and the digital worlds, Siemens empowers its customers to transform their industries and markets, helping them to transform the everyday for billions of people. Since its foundation in the 1950s, Siemens Korea (Siemens Ltd. Seoul) has taken the initiative in providing various business cooperation efforts, active investments and development based on its technology and global experience in order to create positive ties with Korean industries.

독일 베를린과 뮌헨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전기전자 기업 지멘스는 산업, 인프라, 운송,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지난 17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뛰어난 엔지니어링 역량과 품질, 혁신, 신뢰성, 글로벌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공장의 자원 효율성 개선, 탄력적인 공급망 관리, 스마트 빌딩 및 그리드는 물론, 보다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운송 서비스와 첨단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멘스의 기술은 고객을 위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지멘스는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결합함으로써 고객이 산업과 시장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수십억 인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50년대 국내에 진출한 한국지멘스는 선진기술과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 개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847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67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2,200 (as of FY23)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Manufacturing

**Website**  
홈페이지  
www.siemens.co.kr

# SUSTAINABILITY AT SIEMENS

**Transforming the everyday to create a better tomorrow**

Serving society while doing successful and sustainable business is at the heart of Siemens' strategy. We are taking our ESG commitment to the next level with our 'DEGREE' framework. Each letter of DEGREE represents an area where Siemens strives to achieve clear targets: Decarbonization, Ethics, Governance, Resource Efficiency, Equity and Employability. As a responsible corporate citizen, Siemens applies high management standards and strategically focuses on areas such as education, science, society, environment, where company competencies, resources and employee volunteering can make a meaningful difference.

지속가능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시에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지멘스 전략의 핵심이다. 지멘스는 'DEGREE' 프레임워크를 통해 ESG 경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DEGREE의 각 글자는 지멘스가 목표 달성을 위해 주력하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기업 윤리(Ethics), 경영관리(Governance), 자원효율성(Resource Efficiency), 공정성(Equity), 역량 개발(Employability) 분야를 나타낸다. 지멘스는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높은 경영 표준을 적용하고, 교육 및 과학, 사회, 환경 등 회사 역량과 리소스, 임직원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기업 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 • Smart Office Concept

In May 2023, Siemens Korea celebrated the first anniversary of its headquarters' office relocation to Gwanghwamun D-Tower, an environmentally friendly building that has received high ratings from various certifiers for its outstanding energy efficiency. Siemens Korea continues its commitment towards ESG management by implementing the 'Smart Office' concept and optimizing the working space with building automation, which enables to minimize heating costs and reduce carbon emissions. Furthermore, Siemens' owned mobile app 'Comfy' allows employees to book preferred seats and meeting rooms in advance providing a more flexible and efficient work environment.

지난 5월 한국지멘스는 광화문 디타워 본사 사무실 이전 1주년을 맞이했다. 디타워는 에너지 효율성에 있어 여러 인증기관으로부터 높은 등급을 획득한 친환경 빌딩으로, 한국지멘스는 빌딩 자동화와 스마트 오피스 컨셉을 통해 사무공간을 최적화함으로써 난방비를 최소화하고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등 ESG 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자체 모바일 앱 'Comfy'를 통해 직원들이 원하는 좌석과 회의실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 CO2 Reduction at Siemens Gimpo Factory

At the Siemens Gimpo Factory where smart building and fire protection products are manufactured, photovoltaic panels have been installed and operated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s. Additionally, the factory has succeeded in achieving zero waste landfill from recycling wooden crates, packaging materials from imported cargos and reusing various waste products, while also maintaining zero lost time injury frequency rate.



스마트 빌딩 및 소방 제품군을 생산하는 한국지멘스 김포공장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여 탄소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입화물에 사용되는 파レット 및 포장용 부자재의 재활용과 공장의 각종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매립을 제로화(0%)에 성공했으며, 사업장 내 재해율 zero를 유지하고 있다.

### • Meal Serving Volunteering by "The NANUM"

In May, Siemens Korea's 'The NANUM volunteer corps' held a meal serving citizenship program at the Seoul Senior Welfare Center with a donation worth KRW 10 million. Prior to serving the meals, gifts were delivered to the elderly who visited the center to commemorate Parents' Day on May 8. The event was more meaningful this time because it was the first face-to-face volunteering activity held since the outbreak of the pandemic. Siemens Korea will keep pursuing mutual growth with the local communities through continuous corporate citizenship activities.



지난 5월 한국지멘스의 임직원 자원봉사단인 '더 나눔(The NANUM)' 봉사단은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후원금 1,000만원과 함께 약 1천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배식에 앞서 5월 8일에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센터를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지급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첫 대면 봉사활동으로 더욱 의미가 있었다. 한국지멘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할 것을 다짐했다.

### • Earth Day Campaign

In celebration of Earth Day on April 22, Siemens Korea conducted an environmental campaign to join the Carbon Neutral Declaration and Earth Protection initiative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of employees. Throughout the month of April, employees participated in the 'Digital Clean Up' program to reduce CO2 emissions by deleting unused digital data such as apps, photos, and documents. In addition, company-wide lights-out event was held during lunch breaks to raise awareness of employees for protecting the earth.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한국지멘스는 탄소 중립 선언 및 지구 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전사적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 4월 한 달 동안 한국지멘스의 임직원들은 사용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사진, 문서 등의 데이터를 삭제하여 CO2 배출을 낮추는 'Digital Clean Up' 행사를 진행하고 이 외에도 점심시간 동안 전사적으로 건물 소등을 실시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시간을 보냈다.

### • EV Operation

In line with Siemens Group's 2030 carbon neutral goal, Siemens Korea continues to promote the use of EVs and ultimately reduce carbon emissions by replacing its corporate vehicles with eco-friendly EVs since 2021. In addition,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global Green Fleet program designed to overcome environmental challenges, Siemens Korea will continue to expand the operation of EVs to other local offices.



한국지멘스는 지멘스그룹의 2030 탄소 중립 목표에 발맞춰 2021년부터 법인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함으로써 전기차 활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지멘스그룹의 GreenFleet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앞으로 국내 사업장에 전기차 도입과 활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 TÜV SÜD Korea

TÜV SÜD entered the Korean market in 1992, launching ISO 9001 certification services and establishing a presence in the form of an agency. In 1994, the Korean subsidiary was founded, and in 2014, TÜV SÜD became the first global testing and certification organization to open a large-scale battery testing facility in Suwon. As of 2023, TÜV SÜD Korea employs 170 staff members across offices and testing facilities in Yeouido (headquarters), Guro, Suwon, Busan, Daegu, and Shinan. Leveraging German expertise, a global network, and specialized knowledge, TÜV SÜD Korea not only contributes to enhancing product quality and safety throughout Korean society but also supports domestic companies' international market entry through global certifications. Over the course of nearly 30 years, TÜV SÜD has successfully continued its business in Korea.

티유브이 슈드는 1992년 ISO 9001 인증 서비스를 한국 시장에 런칭하며 에이전시 형태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1994년 한국법인을 설립했고, 2014년에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최초로 수원에 중대형 배터리 시험소를 개소했습니다. 2023년 현재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는 여의도 본사를 비롯해 구로, 수원, 부산, 대구, 신안의 사무소 및 시험소에서 17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 전반의 제품 품질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증을 수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한국에서 약 30년간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866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94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170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Testing,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Website  
홈페이지  
www.tuvsud.com/ko-kr

# TÜV SÜD'S COMMITMENT TO THE COMMON GOOD

Guided by our corporate strategy 2025+, "The Next Level. Together.", TÜV SÜD continue to work on achieving our ESG goals and making TÜV SÜD a sustainability-oriented organization. When setting our future corporate direction we always take into account our societal mission and the impact of our corporate actions on society and the environment. Sustainability is firmly enshrined in our corporate actions. Our ambition in social responsibilities is that by promoting and implementing charitable projects, we provide wide-ranging support for societal issues and contribute to the general good. TÜV SÜD is seeking to play a proactive role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our society, with many forms of commitment ranging from donations and collaborations to projects we initiate.

TÜV SÜD 2025+ 전략인 "The Next Level. Together"에 따라 TÜV SÜD는 ESG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방향을 설정할 때 TÜV SÜD는 항상 사회적 사명과 기업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은 TÜV SÜD의 기업 활동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TÜV SÜD의 목표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TÜV SÜD는 기부, 협업, 자체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통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 Sign-In Donation to World Wildlife Fund for Nature at Korea-Germany, Sustainable Business Forum 2023 (August 2023)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지속가능경영포럼에서 서명 이벤트 및 세계자연보호기금에 기부금 전달 (2023년 8월)



In August, TÜV SÜD Korea held a Sign-in Donation Event at the Korea-Germany, Sustainable Business Forum 2023. Distinguished attendees included Dr. Johannes Bussmann, Chairman of the Board of Management, TÜV SÜD AG; Dr. Natalia Duque Ciceri, Vice President, Global Sustainability Services, TÜV SÜD AG; Hyun-Nam Park, Korean Chairperson, KGCCI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Georg Wilfried Schmidt, German Ambassador in Korea; and Eun-Seok Choi, CEO, CJ CheilJedang. With the theme of 'Sustainability', the sign-in event inspired participants to engage in action to create a sustainable world. With a total of 20 signatures, TÜV SÜD Korea made a donation to the World Wildlife Fund for Nature (WWF). WWF works tirelessly to conserve and restore nature, striving for a future where people and nature coexist harmoniously on a sustainable and healthy planet. Donations to WWF are directed towards protecting species threatened by climate change and conserving biodiversity.

TÜV SÜD Korea는 지난 8월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2023 지속가능경영 포럼에서 기부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캠페인에는 요하네스 부스만 (Dr. Johannes Bussmann) TÜV SÜD 회장을 비롯한 나탈리아 뒤케 시세리(Dr. Natalia Duque Ciceri) TÜV SÜD 글로벌 지속가능성 서비스 총괄, 박현남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주한독일대사, 최은석 CJ 제일제당 대표와 같은 주요 연사들이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이번 캠페인은 참가자들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참여하는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TÜV SÜD Korea는 총 20개의 서명을 통해, 세계 자연 보호 기금(World Wildlife Fund for Nature)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WWF는 자연을 보전 및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지구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WWF에 전달된 기부금은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에 사용됩니다.



### • TÜV SÜD Korea at Harmony Marathon with the Visually Impaired (September 2023) TÜV SÜD Korea,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 마라톤대회 참가 및 스포츠타월 후원 (2023년 9월)



expressed his gratitude to TÜV SÜD Korea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this event despite the early hour on Saturday. He stated, "TÜV SÜD will continue to engage in CSR activities that are inclusive of diverse members of society to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y."

지난 9월, 서울 독서한강공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대회'에 TÜV SÜD Korea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대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입니다. 하프코스, 10km 코스, 5km 걷기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TÜV SÜD Korea 임직원들은 안전 관계상 5km 코스에 참여했습니다. 마라톤 대회 후원품 및 참가비는 시각장애인 이동권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어울림 마라톤 대회는 자유로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TÜV SÜD Korea는 다양성을 지지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CSR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TÜV SÜD Korea 임직원이 시각장애인 참가자를 위한 도우미 참가자로 자원하여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이 5km 걷기 코스를 안전하게 완주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TÜV SÜD Korea는 시각장애인 참가자를 위해 주최측에 스포츠타월을 후원했습니다. 서정욱 TÜV SÜD Korea 대표이사는 "토요일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행사에 동참해준 많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며, "티유브이 슈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CSR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포용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September, employees of TÜV SÜD Korea and their families participated in the Harmony Marathon with the Visually Impaired at Ttukseom Han River Park in Seoul, South Korea. The Harmony Marathon with the Visually Impaired, now in its ninth year, is an event that serves as a social activity that brings together visually impaired and non-disabled participants. The event features three categories: a half-course, a 10-kilometer course, and a 5-kilometer course and TÜV SÜD Korea employees participated in the 5-kilometer course for safety reasons. All sponsorship and participation fees are dedicated to enhancing and promoting the mobility rights of the visually impaired.

This event was organized to encourage and support the social participation of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who face challenges in their mobility. TÜV SÜD Korea's participation in the Harmony Marathon is part of i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efforts, aimed at promoting diversity and standing in solidarity with social minorities. During the event, TÜV SÜD Korea employees volunteered as guides for visually impaired participants, assisting them in safely completing the 5 km walking course. TÜV SÜD Korea also sponsored sports towels for the visually impaired participants. Jung-Wook Seo, CEO of TÜV SÜD Korea,



## Volkswagen Group Korea


Established in 2004, Volkswagen Group Korea (VWKG) has four strong brands – Volkswagen, Audi, Lamborghini, and Bentley. By importing and selling a wide range of models that meet the various life sty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ustomers, VWKG is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Korea's imported vehicle market.


2004년 설립된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산하에 폭스바겐, 아우디,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네 개의 강력한 브랜드를 두고 있으며,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에 부합하는 폭넓은 브랜드를 수입, 판매하며 한국 수입차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909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2004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214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Automotive

 Website  
홈페이지  
<https://www.vwkg.co.kr>

# VOLKSWAGEN GROUP KOREA'S CSR INITIATIVE

Volkswagen Group Korea's CSR initiative focuses on fostering future talents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society. Under its CSR Initiative, VWKG endeavors to foster automobile software talents by creat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al, and cultural infrastructure and to help the underprivileged for a healthier community. VWKG also addresses climate changes by engaging in environment programs.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사회공헌 이니셔티브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문화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미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환경문제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UNSDGs

VWKG fully identifies with the ideology of the UN SDGs and is an active participant. All activities fulfill the UN SDGs, including 'Quality Education (SDG 4),'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SDG 11),' 'Climate Action (SDG 13).' CSR initiative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the categories of education, culture, environment and local community.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념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CSR 이니셔티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양질의 교육 (SDG 4),'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11),' '기후 조치 (SDG 13)' 등과 맞닿아 있으며, 교육, 문화, 환경,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Education

Volkswagen Group Korea's education initiative provides students with a diverse set of opportunities to help them grow into future leaders. Education program offers an encouraging learning environment to help more students imagine and design their future career paths.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열어갈 미래를 상상하고 더 큰 희망을 꿈꾸는 중입니다.

#### 1) SEA:ME Program Since 2022

SEA:ME (Software Engineering in Automotive and Mobility Ecosystems) is an advanced course that nurtures talented students with the knowledge and creativity to drive the digitalization of automobiles through programming. It consists of three sub-modules: embedded systems(requisite), autonomous driving systems(elective), and mobility ecosystems(elective), each of which has content for up to 6 months of study and can be selected based on student preference. The program was developed as an open educational resource and employ a peer learning educational model, and science and industry experts are taking part as fellows. SEA:ME program offers opportunities for competent and talented

Korean students to train themselves to become top programmers by implementing masters-level projects specialized in automobiles and as they get to interact with various experts including experts from our



Volkswagen Group and its software subsidiary CARIAD. This April, Volkswagen Group Korea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 German non-profit coding school,42 Wolfsburg, and the German Embassy in Korea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ostering software talents specialized in automobiles. After successful operation with 4 students in 2022, total 30 university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this program for 2023 for the next 2 years.



SEA:ME(Software Engineering in Automotive and Mobility Ecosystems)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동차의 디지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석사 수준의 커리큘럼으로, 12개월 내 모빌리티 분야의 취업 준비를 가능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베디드 시스템(필수 과정), 자율주행 시스템(선택 과정), 모빌리티 생태계(선택 과정) 등 각각 최대 6개월 과정의 세 개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필수 모듈인 임베디드 시스템 모듈을 이수한 후 재량에 따라 남은 6개월 동안 진행하고자 하는 모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개방형 교육자원으로 개발되어 동료간 학습방식(peer learning)을 채택하고 있으며, 과학·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펠로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한국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자동차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프로그래머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폭스바겐그룹과 그룹의 소프트웨어 자회사인 카리아드(CARIAD)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미래자동차 컨소시엄과 독일 비영리 코딩학교 42 볼프스부르크, 그리고 주한독일대사관과 자동차 특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부문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2022년 4명의 학생들을 파견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데 이어, 2023년부터 향후 2년간 매년 10명씩 총 30명의 대학생이 42볼프스부르크에서 진행되는 SEA:ME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2) SEA:ME @ Korea Program Since 2023

Volkswagen Group Korea is also carrying out a program in Korea to apply the SEA:ME program to domestic university bachelor's degree curriculum. Together with Kookmin University, VWKG held a hackathon for Kookmin University students and Hanyang University ERICA Campus students. A total of 21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competition for a total of four days under the theme of infotainment development. Various ideas such as vehicle security and cluster design development were introduced, and among them, the team that developed the automated location information for smooth driving and in-vehicle food ordering for drive-thru services won grand prize. The SEA:ME @ Korea regular program will be implemented sometime next year.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국내 대학교 학사 프로그램에 SEA:ME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기 위한 한국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8월 국민대학교 학생들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커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총 21명이 학생이 참여하여 인포테인먼트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4일 간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차량 보안, 클러스터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고, 그 중 위치 정보를 활용한 동승자 위치 네비게이션 연동 및 차량 내 드라이브스루 키오스크 연동 시스템을 개발한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SEA:ME @ Korea 정규 프로그램은 내년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 Environment

Volkswagen Group Korea has launched a series of environmental programs that contribute to making the world more sustainable and climate-resilient. We will continue to work on improv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children, while also further contributing to the conservation of our ecosystem. Through "Remember Me" project, we donated to schools plants that are designated as a nationally protected species and provided environmental education classes for students to learn and experienc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biodiversity protection activities. In addition, we contributed to the restoration of forest functions and the conservation of forest ecosystems by improving forest landscapes, preventing landslides, securing biodiversity, healing forests, and mitigating heat islands.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미래 인재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리멤버 미(#날 기억해줘)' 프로젝트를 통해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된 식물을 기증하고, 학생들이 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의 중요성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산림복원 및 녹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무 식재를 통해 미세먼지로 발생 하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산림경관 개선과 산사태 예방, 생물다양성 확보, 산림 치유, 열섬 완화 등과 같은 산림 기능 회복 및 산림 생태계 보전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 • Local Community

VWKG supports marginalized groups and empowers local communities through various programs. We will continue to lead the way in reaching out to local communities that need help and offering a helping hand.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앞장서서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행보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 • Secret Santa & Warm Winter Kit (Since 2018)

Secret Santa is a community support program that aims to share the comfort and joy of the holiday season with children in need of social care since 2018. Every year, VWKG employees become a Secret Santa and deliver Christmas gifts to children. Children also receive gift cards purchased with funds voluntarily raised by employees and the company's match funding. Until 2022, total 1,384 children received Christmas gift from VWKG. The Warm Winter Kit is an activity that helps underprivileged neighbors to spend the winter warm and healthy in limited situations such as COVID-19. For the elders in difficult situation, boxes of winter kits consisting of blankets, neck warmers, winter hats, sleeping socks, hot packs, and KF94 masks were delivered to elderly in need. VWKG delivered the kit to total 1,475 elderly. VWKG will continuously share helping hand with the society.

시크릿 산타는 많은 아이들과 따뜻한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2018년 시작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성탄절 나눔활동입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임직원들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시크릿 산타가 되어 성탄 선물을 전달합니다. 더불어 매칭 펀드를 통해 나눔을 위한 따뜻한 기부금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총 1,384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겨울 방한 키트는 코로나19와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나눔 활동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홀로 겨울나기를 해야 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담요와 넥워머, 방한모자, 수면양말, 핫팩, KF94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겨울 방한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누적 1,475명의 어르신에게 키트를 전달했고,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노력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 Armacell Korea LLC

As the inventors of flexible foam for equipment insulation and a leading provider of engineered foams, Armacell develops innovative and safe thermal, acoustic and mechanical solutions that create sustainable value for its customers. Armacell's products significantly contribute to global energy efficiency, making a difference around the world every day. With more than 3,390 employees and 27 production plants in 19 countries, the company operates two main businesses, Advanced Insulation and Engineered Foams. Our focus is on insulation materials that enhance the energy efficiency of technical equipment, high-performance foams for acoustic and lightweight applications, recycled PET products, next-generation aerogel technology and passive fire protection systems.

설비용 고무발포단열재 발명기업이자 엔지니어드 품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Armacell은 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단열 및 소음저감 설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rmacell 제품은 글로벌 에너지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매일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세계 19개국 27개 공장에 임직원 3,390여명과 함께 고품질 단열재와 엔지니어드 품의 두 주요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rmacell은 기술 장비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단열재, 음향 및 경량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성능 폼 및 차세대 에어로젤 기술 및 PFP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Company Profile

- Established in 설립연도 1860
-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2012
-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77
-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Manufacturer and provider of rubber and flexible aerogel insulation
- Website 홈페이지 www.armacell.com / www.armacell.co.kr

# FOR A SUSTAINABLE TOMORROW

Everything we do at Armacell has the primary goal to make a difference around the world. To save resources and protect the planet, we firmly believe in collaboration and support valuable initiatives that help creating the society of tomorrow. Be it by donating products, money or time, Armacell values these actions and involves with them.

우리가 Armacell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전세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일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자원을 절약하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협업을 굳게 믿으며 미래의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계획을 지원합니다. Armacell은 제품이나 비용, 시간을 기부하는 등의 모든 활동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동참합니다.

### • Highlight of CSR Activities



Armacell is committe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annual event called 'Global Armacell Day' is now in its 9th year and has become a traditional day celebrated by the Armacell family around the world. On this day, we enjoy teamwork and celebrate our collabo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through multiple activities that promote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year's theme is 'Energy Efficiency'. Energy efficien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Improving the energy efficiency of technical equipment is a

prerequisite to meeting growing energy demands while protecting the planet for future generations. As a manufacturer of insulation materials, Armacell is committed to enhancing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saving. Armacell Korea LLC is also celebrating 'Global Armacell Day', and this year, we visited the Energy Campus located in Dangjin City and participated in activities to improve knowledge about energy. It was a new opportunity to learn about mankind's history of energy usage, the generation process of electrical energy, and future energy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We cherish and participate in 'Global Armacell Day', and through this, we hope to contribut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local community development. Please support our efforts for a sustainable future.

Armacell은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Global Armacell Day'라는 매년 열리는 행사는 이제 아홉 번째를 맞이하며, 전 세계 Armacell 가족들이 함께 기념하는 전통적인 날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날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장려 및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기념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호하려면 기술 장비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Armacell은 단열재 제조업체로서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rmacell Korea LLC도 역시 'Global Armacell Day'를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는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에너지 캠퍼스를 방문하여 에너지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인류의 에너지 사용 역사, 전기 에너지의 생성과정과 미래 에너지 등에 대하여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Global Armacell Day'를 소중히 여기며 참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응원해 주십시오.



## Porsche Korea

Porsche Korea Ltd. (CEO, Holger Gerrmann), the 17th subsidiary of parent company Dr. Ing h.c. F. Porsche AG, which marks its 75th anniversary this year, has been introducing various products including the 911, the world's bestselling sports car to the Korean market. With five authorized dealer partners, Porsche is running 13 Porsche Centres, 14 Porsche Service Centres, 4 Porsche Approved Centres, 3 Porsche Studios, and Porsche Store Song-pa.

포르쉐코리아 (대표 홀가 게어만)는 올해 브랜드 탄생 75주년을 맞은 포르쉐 AG의 17번째 자회사로, 스포츠카의 대명사 911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공식 딜러사와 함께 전국에 13개 포르쉐 전시장과, 14개 서비스센터, 4개의 포르쉐 인증 중고차 센터, 3개의 포르쉐 스튜디오와 포르쉐 스토어 송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Company Profile

-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948
-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2014
-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94 (as of October 2023)
-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An official importer and distributor of Porsche in Korea
- Website 홈페이지 www.porsche.com/korea/ko/

# PORSCHE KOREA'S CSR CAMPAIGN 'PORSCHE DO DREAM'

With Porsche's brand identity "Dream" as the concept, the "Porsche Do Dream" campaign was designed to provide practical help to beneficiaries, encompassing socially vulnerable people who need assistance. In addition, Porsche Korea, which is a brand receiving great love in the Korean market, added the meaning of "knocking on the door" to take one step closer to Korean society. Porsche Korea will gradually expand its authentic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which correspond to the core values of Porsche, including 'Humanitarian', 'Talent', 'Education',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포르쉐 두드림(Do Dream)' 캠페인은 포르쉐의 브랜드 정체성인 '꿈'을 콘셉트로, 따뜻한 손길이 아쉬운 사회 취약계층과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포르쉐코리아가 한국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도주의', '재능', '교육', '환경', '지속가능성' 등 포르쉐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 Highlight of CSR Activities 2023



Since the launch of the "Porsche Do Dream" campaign, which reflects the values of "Dream" and "Passion" in 2017, Porsche Korea has been presenting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corresponding to Porsche's brand philosophy in various fields such as culture, art, education, and environment. Porsche Korea has been consistently supporting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 to help children achieve their dreams. Starting in 2021, Porsche Korea has expanded its scope to cultural arts,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environment of culture and arts.

This year, in celebration of 75 years of Porsche sportscars, Porsche Korea presented programs embodying the brand's philosophy of tradition and innovation for those who dream. For the preserva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its heritage, Porsche Korea partnered with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and showcased the exhibition "1899, Gift for Prince Heinrich," commemorating the 1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Germany. The "Porsche Dreamers. On. Media Art Project" themed around 'dream' and 'color', representing Porsche's brand identity, presented through a partnership with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upported emerging artists and provided people with more opportunities to enjoy art in their daily lives. Additionally, Porsche Korea has contributed to making 75 wishes of ill children come true in honor of 75 years of Porsche sportscars with the Make-A-Wish foundation. Porsche Korea has donated approximately 5.9 billion KRW to the "Do Dream" campaign and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a wider range of social activities.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2017년 '꿈'과 '열정'의 가치를 반영한 '포르쉐 두드림' 캠페인 론칭 이후 문화, 예술, 교육,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포르쉐의 브랜드 철학과 상응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꿈'을 꾸고 실현 하도록 꾸준히 교육 및 환경 분야를 지원해온 데 이어 2021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환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르쉐 75주년을 기념하며 꿈꾸는 이들을 위해 전통과 혁신에 기반한 브랜드의 철학이 담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국외소재 전통예술품 재현 프로젝트 '1899, 하인리히 왕자에게 보낸 선물' 전시를 개최하여 전통문화의 가치와 문화유산 전승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포르쉐 브랜드 정체성을 대표하는 '꿈'과 '컬러'를 주제로 한 '포르쉐 드리머스 온 미디어아트' 공모전을 열어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신진아티스트들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일상 속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난치 병 아동의 소원을 이뤄주는 Make-A-Wish 재단과 포르쉐 75주년에 맞춰 75개의 소원이 실현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르쉐코리아는 '두드림' 캠페인을 통해 약 59 억원의 기부금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 GERM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KGCCI & KGCCI DEinternational

KGCCI has been serving as the official representative of German Business in Korea since its foundation in 1981. It's the second-largest foreig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with a growing network of around 500 members. As the first point of contact for German and Korean companies exploring business opportunities in each country, KGCCI and its subsidiary KGCCI DEinternational serve as a communication platform and offer professional services to support market entry and expansion. The services include, among others, market research, business partner matching, trade fair business, delegation trips, and investment promotion.

한독상공회의소(이하 '한독상의')는 1981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 업무를 수행해왔다.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회원사는 500여 곳에 달한다. 독일 경제 및 산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한독상의는 한국과 독일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양국 기업의 중요 소통 창구이자 시장 진입 및 사업 확장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한독상의는 자회사 한독상공회의소디인터내셔널과 더불어 시장 조사와 사업 파트너 발굴, 박람회 참가 지원, 투자 유치, 산업 시찰 프로그램 등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독 에너지파트너십 등의 정부 주도 양자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Germany**  
설립연도  
1894

**Start of Business in Korea**  
한국지사 설립연도  
1981

**Number of Employees in Korea**  
한국 직원 수  
26

**Line of Business**  
사업분야  
Business association

**Website**  
홈페이지  
www.kgcci.com

German companies have a longstanding tradition with CSR, long before this term was even coined. The idea of the "honorable merchant" has been one of the leading principles of German companies and the German Chamber organization for centuries. It emphasizes that merchants shall create value to their communities and act according to an honorable set of codes, wherever they do business. While being active in Korea, these ideals are also emphasized and practiced by German companies and their Korea subsidiaries. The CSR activities of German companies are numerous and diverse in their forms. From healthcare support and environment protection to the support of underprivileged childr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many more, German companies have shown that they are active and engaged in their local Korean communities.

독일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라는 용어가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이와 관련하여 오래된 관례를 가지고 있다. '존경받는 상인'이라는 개념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독일 기업과 상공회의소들의 주요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개념에 따라 상인은 지역사회에 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명예로운 상인의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독일기업들과 그들의 한국 내 자회사들에 의해 여전히 중요시되고 행해지고 있다. 독일기업의 CSR 활동은 그 형태가 수없이 많고 다양하다. 의료 지원, 환경 보호부터 사회 취약계층 지원까지 독일기업들은 한국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KGCCI supports governmental initiatives such as the Korean-German Energy Partnership and contributes to Korean society through its various initiatives such as Ausbildung (Dual Vocational Training), WIR (Women in Korea) Mentorship, etc. KGCCI belongs to the global German Chamber Network Abroad (AHK) with 150 German Chamber offices in 93 countries and about 50,000 members worldwide. Its umbrella organization is the 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DIHK) with offices in Berlin and Brussels, serving the 79 Chambers in Germany (IHK) and their 3.6 million member companies.

한독상공회의소는 한-독 에너지 파트너십 등의 정부 주도 양자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독일식 일-학습 병행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아우스빌둥 (Ausbildung), 여성 리더십 증진을 위한 위어 (WIR, Women in Korea) 멘토십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전 세계 93개국 150개소에 달하는 외국 주재 독일상공회의소(AHK) 네트워크에 속해있다. 상부 단체인 독일연방상공회의소(DIHK)는 독일 내 79개 지역상공회의소를 두고 회원사 약 360만 곳을 보유하고 있다.

### • Joint CSR "140 Guide Walkers"

KGCCI hosted "140 Guide Walkers" joint CSR event on September 16, 2023, at Ttukseom Hangang Park in Seoul. In celebration of the 140th anniversary of Korean and German diplomatic relations, nearly 300 colleagues and partners from KGCCI and its member companies served as guide walkers for individuals with visual impairments at the 9th Harmony Marathon with Visually Impaired, organized by Seoul Disabled Sports Association.



The "KGCCI Joint CSR 140 Guide Walkers" event has been a collaborative effort of KGCCI and its members and partners. Notable figures of the event included Jörn Beissert, Deputy Head of Mission at German Embassy to Seoul, Holger Germann, German Chairperson of KGCCI and CEO of Porsche Korea, Martin Henkelmann, President and CEO of KGCCI, HaJoong Chung Vice Chairperson of KGCCI and President & CEO of Siemens Seoul, May Young-Mi Kim, President of Henkel Korea, JiSook Lee, CFO of Bayer Korea, Jung-Wook Seo, CEO of TÜV SÜD Korea, WooKyu Kim, Managing Director & Representative Director of Merck Korea and other KGCCI board members.

In the opening ceremony, Jörn Beissert, Deputy Head of Mission at German Embassy to Seoul gave a congratulatory speech by stating, "It's great that the German business community in Korea is actively supporting individuals with visual impairments. I am delighted to be a part of the '140 Guide Walkers' program personally. Together, it's even more enjoyable!"

In a remarkable show of support, about 30 German companies and partners, including Adidas Korea, Armacell Korea, BASF Company, Bayer Korea, BDO Sunghyun, Continental Automotive Korea, Daimler Truck Korea, Deutsche Bank AG Seoul Branch, ECOVIS Hanshin, Festo Korea, Goethe-Institut, Henkel Korea, Leschaco Korea, Logwin Air & Ocean Korea, Merck Korea, Munich Re Korea, Porsche Korea, Prettl SWH Korea, RIKUTEC Asia, RWE Renewables Korea, Sartorius Korea Biotech, Siemens Korea, TRUMPF Korea, TÜV SÜD Korea participated in this initiative.



To commemorate the 140th anniversary of Korea-Germany, KGCCI donated 140 white canes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and all participation fees were dedicated to enhancing transportation services for the visually impaired. BDO Sunghyun donated 5 million won and Deutsche Bank AG Seoul Branch contributed to assist the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Henkel Korea supported the cause by donating 3,400 products to all participants of the 9th Harmony Marathon. TÜV SÜD Korea, Adidas and Daimler Truck Korea also donated gifts for the event. Meanwhile, Bayer Korea organized event booths to showcase their products and engage with participants.

Hyun-Nam Park, Korean Chairperson of KGCCI, and Managing Director and Branch Manager of Deutsche Bank AG Seoul Branch expressed, "Together, we pave the way for a brighter future, where Korean and German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social impact walk hand in hand, leading to a more inclusive and caring world."

한독상공회의소는 한독수교 140주년을 맞아 회원사와 함께 공동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140 가이드 워커"로 서울 독섬 한강공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걷기 도우미 봉사활동과 후원금 및 물품 전달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건강증진과 장애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9회 어울림 마라톤 대회'의 일환으로 한독상의 및 회원사 임직원 300여명이 5km 걷기 부문에 참여해 시각장애인과 함께 한강변을 걷는 도우미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 요른 바이서트 주한 독일부대사, 한독상의 독일 회장인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 한독상의 마틴 헨켈만 대표, 한독상의 부회장인 정하중 한국지멘스 대표, 김영미 헨켈코리아 대표, 서정욱 TÜV SÜD코리아 대표,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이사 등 한독상의 이사진들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바이서트 부대사는 축사를 통해 "주한독일기업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멋진 일이고, '140 가이드 워커'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함께하면 더 즐겁다"고 전했다.

한독상의 회원사인 다임러트럭코리아, 도이치은행, 레사코코리아, 로그윈에어앤오션코리아, 리쿠텍아시아, 뮌헨러 코리아, 바이엘 코리아, BDO성현회계법인, 싸토리우스 코리아, 아디다스, 아마벨코리아, 주한독일문화원,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포르쉐코리아, 한국머크, 한국바스프, 한국지멘스, 한국프레를, 한국웨스트, 한신회계법인, 헨켈코리아, RWE, TÜV SÜD 등 30여개 기업 및 단체들이 대거 참가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한독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한독상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140개의 흰 지팡이를 기부했다. 도이치은행, 바이엘 코리아, BDO성현회계법인은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모든 기부금 및 참가비는 서울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또한, 헨켈코리아는 이번 행사의 모든 참가자들을 위해 3,400개 제품을 증정했고, TÜV SÜD, 아디다스, 다임러트럭코리아는 경품과 기념품을 제공했다. 바이엘 코리아는 시음 행사 부스도 운영했다.

한독상의 한국 회장인 박현남 도이치은행 대표는 "앞으로 더욱 포용하고 배려하는 미래를 위해 한국과 독일 기업이 함께 사회적책임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Women in Korea (WIR) Mentorship Program (Since 2018)



The KGCCI's Women Leadership Group "Women In Korea" (WIR – pronounced 'we are') is a Mentorship Program that consists of an international network of woman managers from all industries and countries. First launched in 2018 and with a primary focus on gender, generations and geography, it aims to identify leadership potential of local female professionals and enables them to develop and use a value-based leadership approach. On March 8, International Women's Day, WIR group held a successful kick-off event, marking its return to in-person meetings after a hiatu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event, jointly hosted with the Embass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eoul at the residence of German Ambassador to Korea Michael Reiffenstuel, brought together over 90 participants, especially female executive mentors and mentees from a wide range of industries and companies. This includes Kyobo Life Insurance, Deutsche Bank AG Seoul Branch, Korea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e, CJ Corporation, Yulchon LLC, Bayer Korea and Korn Ferry.

한독상의 여성 리더십 단체 'Women In Korea' (WIR '위어'/독일어: 우리)는 산업과 국가를 막론한 여성 경영자들의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멘토십 프로그램이다. 2018년 최초로 출범되어서 성별, 세대와 지역에 포커스를 두고 국내 여성 직원들의 리더십 잠재력을 발견하고 가치 중심의 리더십을 이끌어 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WIR그룹은 지난 3월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2023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하며 코로나 이후 WIR 멘토십 연간 프로그램의 첫 행사를 주한독일대사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WIR 그룹 멘토와 멘티들인 한독상의, 교보생명,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한국국제금융연수원, CJ제일제당, 법무법인 율촌, 바이엘코리아, 콘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 경영진 및 직원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 #Plant\_Our\_Planet\_Campaign



In July 2023, Hyun-Nam Park, Korean Chairperson of KGCCI, took a part in the '#Plant\_Our\_Planet\_Campaign.' The challenge was jointly led by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Forest Service, and UNICEF Korea to raise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mbating climate change and promoting global reforestation. Participants of the challenge took a photo with the official slogan and uploaded it on social media. Park was appointed to participate by German Ambassador to Korea, Michael Reiffenstuel. She then nominated HaJoong Chung, President & CEO of Siemens Korea, May, Youngmi Kim, President of Henkel Korea, and Jisook Lee, CFO of Bayer Korea.

한독상공회회소 박현남 회장이 지난 7월 '글로벌 숲 조성 캠페인 #Plant\_Our\_Planet\_Campaign 챌린지'에 참여했다. 본 캠페인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글로벌 협력과 숲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 산림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캠페인 로고가 그려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현남 회장은 주한독일대사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가자로 한국지멘스 정하중 대표, 헨켈코리아 김영미 대표, 바이엘코리아 이지숙 CFO를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 YOUR TRUSTED HR PARTNER IN KOREA

Begin your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with KGCCI!

**Berufsbildung (Vocational Training)**  
**Train the Trainer (AdA International)**

Your Future Employment in the Right Way.



## Recruiting



Personal Recruitment Service, Candidate Search Service

## Job Fairs



Campus Recruiting of German companies, German Joint Recruiting event

## Job Market

Posting of Job vacancies, Applicants Search



## HR Seminars

Soft-skill and intercultural Workshops, Language Courses



## HR Networking



HR Circle, HR Conferences

## HR Survey



Salary and Compensation report

Ever wondering how a company can develop its key competencies and keep sustainable employment at the same time?

- Implement **Germany's Berufsbildung system**, a successful VET model that enables smooth education-to-work transitions of your employees.
- Get to know **Train-the-Trainer (TtT)**, an action-oriented pedagogical approach towards developing a holistic occupational competence.
- Please contact Ausbildung Team at KGCCI for further information.

**Tel.: 02-3780-4695**

**E-mail: [yjkim@kgcci.com](mailto:yjkim@kgcci.com)**



# KGCCI MEMBERSHIP CATEGORIES 2023

Fee	Corporate (annual)		Associate/Individual (annual)
In Korea	W	920,000	Staff up to 50
	W	1,730,000	Staff up to 51-299
	W	2,420,000	Staff up to 300-499
	W	2,770,000	Staff over 500
			W 290,000
In Germany /Abroad	€ 770		€ 220

For inquires, please contact Young-Min Kim, Senior Membership Manager  
ymkim@kgcci.com | 02-3780-4631

# KGCCI PREMIUM PARTNER PROGRAM 2023



**KRW 12,500,000 (+VAT)**  
VALUE of 19,028,000



**KRW 7,000,000 (+VAT)**  
VALUE of 12,951,000



**KRW 5,000,000 (+VAT)**  
VALUE of 9,094,000

- ◆ **Logo exposure** on email signature of all KGCCI correspondence, all major events, invitations and on background of virtual meetings/webinars
- ◆ **Advertisement exposure** on KGCCI website, KORUM Magazines, weekly newsletters and Email signatures
- ◆ **Sponsor** of one of KGCCI Networking Dinner Events & one of KGCCI Networking Gatherings

Logo size and amount of advertisement exposure and size of sponsorship package depends on PremiumPartnerPackage category.  
Every PremiumPartnerPackage can be customized to your needs!



For inquires, please contact [events@kgcci.com](mailto:events@kgcci.com) | 02-3780-4660

## 2023 CSR REPORT OF GERMAN COMPANIES IN KOREA

KGCCI CSR Report  
Ninth Edition, November 2023

©KGCCI DEinternational Ltd. 2023

8th FL., Shinwon Plaza, 85, Dokseodang-ro,  
Yongsan-gu, Seoul 04419  
T +82 2 3780 4600 E info@kgcci.com  
www.kgcci.com

A portion of the proceeds from this brochure will be  
donated to a charity project in Korea.





# **2023 CSR REPORT**

OF GERMAN COMPANIES IN KOREA